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저작권

책, 편지, 사진, 그림, 음악, 영화 등은 모두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창으로 정보와 즐거움, 지식 창조의 토양을 제공해 주며, 이들은 도서관, 기록 보관실, 박물관 등의 노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책, 편지, 사진 등의 저작물들은 디지털화 되어 제작되고 있고, 인터넷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 제작을 촉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디지털 저작물들이 매일 분실, 폐기되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디지털 저작물 보존은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디지털 저작물 보존은 필연적으로 복사본을 남기게 되는데 많은 국가에서는 저작물 보존을 위한 복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예외 조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저작권 보존은 어떠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과거의 저작물 보존은 가끔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대비 또는 책, 영화, 그림, 사진 등을 단순히 저장하기 위한 수동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수정, 손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의 보존은 저작물이 생성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화재, 홍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디지털 저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복사본이 필요하다. 기록 보관을 위한 저작물 경우에는 배포, 이용, 공중에 대한 공연 등과 같은 저작물의 재생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관, 기록 보관실 등의 보관 기관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저작권법 예외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아 종종 시행에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실이 3개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만 복사본 3개만으로는 디지털 저작물을 보존하기 어렵다. 법에서는 저작물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복사본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정해 놓았지만, 사실상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손상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록 보관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사본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추가 복사를 허용한다. 그러나 하드 카피 형태로 배포되었던 저작물들이 오늘 날에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판매되고 있으며, 어떤 저작물들은 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번 보거나 스트리밍을 목적으로 제작·판매된다. 홈페이지, 블로그를 비롯한 UCC 등이 이러한 문화 흐름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만약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들을 기록 보존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즐길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다.

WIPO는 지난 7월 15일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그 방법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하여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저작권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전 세계의 도서관, 디지털 저작물 보존,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저작권법과 디지털 저작물 보존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패널들은 온라인 저널, 인터넷, 신문 등의 디지털 저작물 보존 활동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기록물 보존 기관이 체계적인 디지털 보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The International study는 기록물 보존 기관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를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 보존 기관에 법적 권한 부여 및 효율적인 디지털 보전이 가능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무제한 복제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적절한 예방과 접근 제한이 있어야 저작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보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외 항목을 두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실 몇몇 국가에서는 디지털 보존을 위해서 이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디지털 보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기록 보존 기관과 저작권자들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 보존을 위한 충분한 자금, 기술적 조치, 합의 역시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저작물 보존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 보존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괄목할 만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출처>

o WIPO MAGAZINE, October 2008.